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vol.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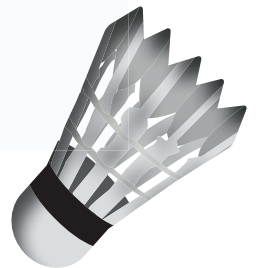
2017. 04.

법원 사람들



HARMONY

혼자라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같이 어울릴 때 그 화음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봄이 노래하는 오색찬란한 자연의 하모니처럼
업무에서도 생활에서도 소통의 하모니를 연주해봅시다.



대법원



Cover Story

이번호 표지 주인공들은
배드민턴으로 업무 스트레스는
날리고 동료애는 쌓는
대전지방법원·가정법원
천안지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Contents

2017 April vol. 384

04



07



39



45



발행일 2017년 4월 1일
통권 384호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편집인 공보관 조병구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이종표
편집기획팀 박가영, 우준서, 신영분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이메일 법원사람들@scourt.g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courtorea>
트위터 <http://twitter.com/scourtorea>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유튜브 <http://www.youtube.com/scourtorea>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기획·디자인·인쇄 (주)성우애드컴 전화 02)890-0900

소통으로

With Local

: 대전지방법원·가정법원 천안지원

04 프롤로그

06 법원 특! 특!

천안·아산의 새 시대를 열
신(新)요람을 기대해주십시오

10 포토 카툰

천안지원 배드민턴 동호회

12 Tour

‘나라 사랑’과 꽃향기 깃든 봄나들이
천안지원 인근 여행지

공감으로

With Court

16 핫 이슈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발간

18 나의 일 나의 삶 I

일상으로의 초대

22 나의 일 나의 삶 II

관사가족

26 테마가 있는 글

소나티네 14번
- 아들과 나의 콩쿠르 경험담

30 조사심의관 코너

신임 조사심의관의 고백

34 줄인

멘사(Mensa)를 아시나요?

37 법원으로의 초대

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교육생의 대법원 견학

행복으로

With People

38 현장 속으로

지금은 글로벌 시대, 외국인 재판 통역지원 현장 및
통역지원제도를 만나보다

40 스타일링 Q

꽃피는 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 양성주 법원행정처 실무관

44 만나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드라마
-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선수

48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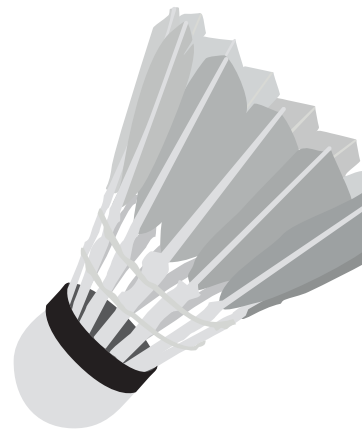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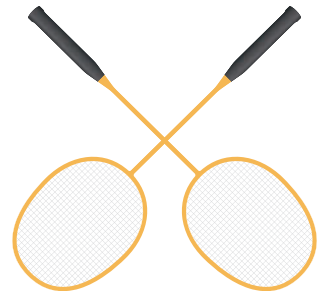
혹시 당신도 변아웃?

50 트렌드 따라잡기

강연의 시대, 그 빛과 그림자

52 COURT NEWS

54 독자 마당





대전지방법원·가정법원 천안지원

글·사진_편집부



천안 왕지봉 배꽃

‘이화(梨花)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봄날 흐드러지게 핀 배꽃을 볼 때면
이조년의 다정가(多情歌)가 생각납니다.
봄이 오면 온천지를 하얀 세상으로 뒤덮는
왕지봉 배꽃은 천안의 명물 중 하나입니다.

대전지방법원·가정법원 천안지원도
때묻지 않은 순백으로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아름다움과 향이 짙어지는 배꽃처럼
지역사회에 정의와 신뢰를 꽃피우며
지역민과 더불어 소통의 향기를 나누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아산의 새 시대를 열 신(新)요람을 기대해주십시오



천안은 참 많은 얼굴을 갖고 있는 도시다. 수많은 차량이 천안을 거점 삼아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KTX를 비롯한 다양한 열차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요 역이다. 인구 역시 곧 100만 명에 이를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니 전국에서 보기 드문 생동감 넘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천안지원은 이 같은 도시의 생명력에 발맞춰 그 위상과 역할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지원 중 한 곳이다. 오는 10월,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천안지원을 방문해보았다.

글_이경희 사진_고인순·황원 영상_오민석

성장하는 도시, 발전하는 천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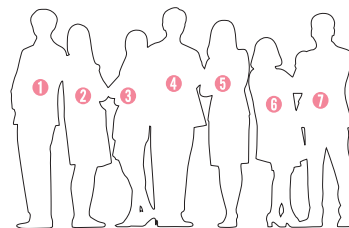
솔직히 말하자면, 천안지원에 들어서는 순간 느낀 것은 당혹스러움에 가까운 놀라움이었다. 바로 조금 전 화려한 백화점이 들어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순간 돌연 타임머신을 탄 듯 과거로 회귀한 풍경 때문이었다.

이제 부임한 지 갓 한 달이 된 이재희 지원장은 방문객들의 가감 없는 첫 인상 이야기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본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도 방문객들의 차량이 복작거리는 작은 안마당과 지나간 세월의 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낡고 빛바랜 건물들이 ‘천안’이라는 도시와는 꽤나 동떨어진 이미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이재희 지원장에게 천안·아산과 천안지원은 이제 현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그 도시를 관할하는 사법서비스 기관으로서 빛나는 자부심이 되었다.

“천안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고속철도까지 개통되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져 직장인과 대학생 등 유동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천안과 아산은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 상주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관할 인구가 조만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직원들은 매우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① 정재우 실무관
- ② 임서영 행정관
- ③ 한나라 판사
- ④ 이재희 지원장
- ⑤ 김경남 가사조사관
- ⑥ 조아라 속기사
- ⑦ 강창봉 종합민원실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직원들은 매우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흰칠한 키와 외모로 부임하자마자 천안지원 식구들의 눈을 크게 뜨이게 한 이재희 지원장의 명쾌한 설명이다.

지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

1909년 공주지방법판소 천안구재판소로 개칭한 뒤 오랜 세월을 지역민과 함께해온 천안지원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법과 주민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폭넓은 제도를 운용해왔다.

2016년에는 지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각각 1개 이상의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총 19개 학교 1,738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했고 2007년 5월 천안지원(아산등기소, 아산시법원 포함) 직원들의 자



지난 108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아올린 신뢰를 발판으로,
천안지원은 새 요람에서
더 큰 신뢰와 애정을 쌓을
준비를 마쳤다.



발적인 참여로 발족한 ‘한사랑 봉사단’은 직급별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적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천안 새소망의집과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쌀 및 아기용품·여성물품·생필품 등을 전달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월 1회 독거노인 7가구에 쌀 10kg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의 낮은 곳까지 두루 살피려는 천안지원 식구들의 마음 씀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키고 있다. 또한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민 사법모니터, 법원 신규 직원을 위한 멘토·멘티 제도 등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천안지원의 노력이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2017년은 천안지원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다. 지금의 좁은 청사에서 벗어나 올해 늦가을쯤이면 새로운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해의 가장 큰 현안은 현재 진행 중인 청사신축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사는 너무 낡고 비좁아 근무하는 법원 구성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요. 다른 법원에 비해 사건이 많아 법관 및 직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절실한 상태인데도 사무실이나 법정 이 부족해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사가 신축돼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 법관과 직원의 증원도 기대할 수 있게 돼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재희 지원장은 신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금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건물 내부의 위치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신청사가 열 새로운 천안지원 시대에 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



Mission Start

나만의 화분 갖기 도전!



Interview



이재희 대전지방법원·가정법원
천안지원장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에서 취재
동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법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것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법원의 법관과 직원들이 비록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법원이 공평무사한 재판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내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일방적인 지시나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때 내 직장을 지키고 그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재판장을 맡는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될 때마다 구성원들에게 늘 강조한 것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빨리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우리 법원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고민하고, 소규모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지원은 대전 관내에서도 매우 인기가 높은 법원입니다. 천안지원에 근무하기 위해 대기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수한 직원이 많고, 근무하는 법원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지금 까지처럼 늘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고 서로 어려운 일을 챙기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청사 신축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무실 배치와 인테리어 작업, 예술품 구입, 구내식당과 카페테리아 및 어린이집의 운영방식 결정 등을 적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청사 이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청사 신축이 마무리되면 새로 확보된 시설을 이용해 법원 아카데미 등 법원 구성원과 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천안지원은 막연한 신비주의에 안주하거나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민편의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천안지원의 직원들은 재판은 엄정하면서도 공평무사하게 하면서 동시에 일반 민원서비스는 다른 행정기관에 뒤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사랑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MINI Interview

대전지방법원·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람들의 한마디



한나라 판사

남편 이우열 변호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판사인 제게 변호사로서 많은 법정을 다니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런 부분은 본받을 만하다'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겠다' 등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남편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아라 속기사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신 민사와 정주미 속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저와는 제 어머니의 친구분 따님이라는 인연이 있는데, 일도 워낙 잘하시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크신 분이어서 저도 법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배울 점이 매우 많고 닦고 싶은 법입니다.



강창봉 종합민원실장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이재선 참여관님과 박종희 국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재선 참여관님은 제가 흥성지원에 발령을 받았을 때 이번 사무관 승진시험에는 꼭 합격해야 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게끔 해주셨고, 박종희 국장님은 저를 격의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임서영 행정관

저는 가장 소중한 걸 지켜주신 대전지방법원의 이관선 총무과 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는데 한 번은 의식을 잃어 쓰러지고 또 한 번은 응급 상황에 처한 저를 두 번 다 병원으로 옮겨주셨어요.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김경남 가사조서관

지금은 등기과에 계신 이옥주 등기관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천안지원에 처음 왔을 때 같은 재판부 참여관님이셨는데 큰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법원 생활에 대해 알려주시고 일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도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옆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재우 실무관

저는 민사과에 있는 이태호 실무관에게 고맙다는 말과 칭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까다로운 가사비송 업무를 막힘없이 처리함은 물론 감정이 격해져 있는 가사 민원인들의 전화 응대를 할 때도 본인이 겪는 상황처럼 상세하고 따뜻하게 응대하는 것에 늘 놀랐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실무관입니다.



활력이 팡팡!! 동료애가 펑펑!!

천안지원 배드민턴 동호회

글_이경희 · 사진_고인순





‘나라 사랑’과 꽃향기 깃든 봄나들이

천안지원 인근 여행지



봄이 오면 천안에도 훈풍이 분다.
독립기념관에는 나들이객이 숲길 산책에
나서고 왕지봉은 배꽃으로 수놓인다.
도심 미나릿길 벽화골목과 천호지에는 봄을 맞은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글·사진 서영진(여행칼럼니스트) 사진협조 굿모닝충청



2



 천안지원 인근 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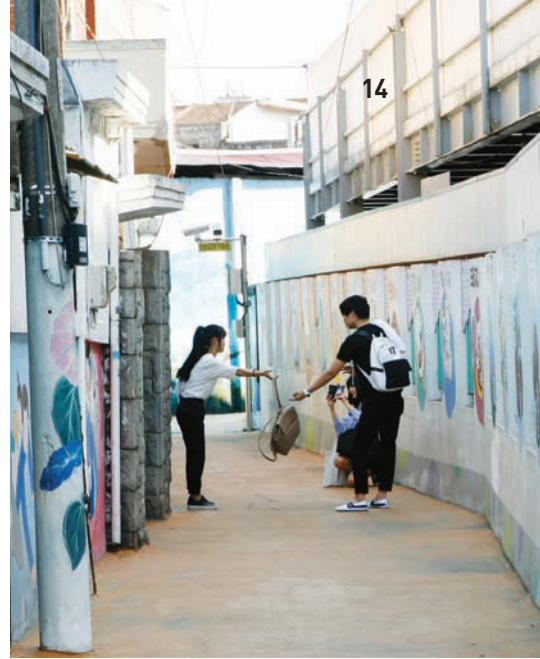


3

천안 봄나들이에는 ‘호국의 마음’이 덧씌워진다. 천안에는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가 있고, 유적들은 호젓한 산책로로 이어져 봄 여행을 더욱 따스롭게 채색한다. 천안 여행의 상징이 된 독립기념관은 일상의 삶과 친숙한 공간이다. 애국선열의 자주독립 의지를 고취하는 뜻깊은 유적인 동시에, 가족 여행객들에게는 안락한 휴식처다. 기념관에는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다양한 전시물과 더불어 신록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가 있다. 나무 그늘 아래 돛자리를 펴고 꼬마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도 흔히 만나게 된다.

독립기념관과 왕지봉 배꽃

독립기념관에 들어서면 동양 최대의 기와집인 겨례의 집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겨례의 집은 수백사 대웅전을 본떠 설계한 맞배지붕 건물로 북경의 천안문보다 규모가 크다. 815개의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는 태극기 한마당이



1. 천안 독립기념관의 태극기 한마당. 815개의 태극기가 연중 게양돼 있다.
2. 독립기념관 겨례의 집 내부의 조각상.
3. 추모각, 기념관 등이 자리한 유관순 열사 사적지.
4. 천호지 주변으로는 대학 캠퍼스와 호젓한 봄 산책로가 어우러져 있다.
5. 70~80년대 천안의 풍경과 벽화들이 뒤섞인 구도심 미나릿길 벽화골목.
6. 독립기념관 뒤뜰로 이어지는 산책로.
7. 빨간 가방을 테마로 한 아라리오 광장의 현대건축물.



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자재로 조성한 전시공원 역시 주요 볼거리다. 전시관들은 일제 강점기의 국난 극복사와 각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등을 시기별로 구분해 전시하고 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로 이동하며 천안의 나라 사랑 여행은 무르익는다. 유관순 열사의 아우내 만세운동이 펼쳐진 아우내장터 일대는 병천순대거리가 조성돼 있다. 병천장터에서 유관순 열사 사적지까지는 걸어서 10여 분이면 닿는다. 추모각과 동상, 기념관, 생가 등이 들어서 있으며 초입에는 뜻을 기리는 열사의 거리가 조성돼 있다.

4월의 천안은 곳곳에서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난다. 천안 12경에도 이름을 올린 왕지봉 일대는 배꽃으로 하얗게 단장된다. 성환읍은 천안 신교배의 주산지로 왕지봉에서 왕림리에 걸쳐 배밭이 펼쳐져 있다. 4월에 꽃망울을 터뜨린 배꽃은 5월까지 이어지며 하얀 배꽃 세상을 만들어낸다. 북면의 병천천 일대 역시 4월 초·중순이면 벚꽃 향연에 휩싸인다.

미나릿길, 아라리오 광장서 예술 산책

천안 일대는 이 밖에도 가벼운 봄나들이에 좋은 여행지들이 두루 있다. 천호지는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꽃송



이가'에도 나오는 단대 호수와 연결되는 곳이다. 천호지 인근에 5개의 대학 캠퍼스가 있으며 호숫가 산책로와 어우러져 청춘들의 데이트 욕구를 부추긴다.

태조산은 조각공원, 각원사 청동대좌불 등을 둘러보며 산책하는 코스가 호젓하다. 천안 광덕면과 아산 배방면 사이에 있는 광덕산은 수려한 산세와 함께 완만한 등산로로 상춘객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광덕사 앞 400년 된 호두나무가 명물인데 호두는 바로 천안의 트레이드마크다. 광덕산에 오른 뒤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다.

천안 도심에서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는 곳은 구도심 중앙동의 미나릿길 벽화골목이다. 미나릿길 벽화골목은 1970~1980년대 천안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은 미로 같은 옛 골목길이다. 연인들의 촬영 코스로도 떠오르는 이 길은 테마별 벽화로 새롭게 단장됐다. 어릴 적 놀이를 구현한 벽화에서 12간지 동물을 담은 그림까지 다양한 벽화가 시간여행을 돕는다.

천안 여행은 해 질 무렵이면 터미널 인근 아라리오 광장에서 독특한 도심 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며 마무리 짓는다. 아라리오 광장에는 세계 거장들의 현대 조각 작품이 노천에 가지런히 전시돼 있다. ☐

TIP

먹거리

“선지로 꽉 찬 병천순대”
—천안의 맛—



천안에서 손꼽히는 명물은 병천순대다. 아우내장터의 병천순대골목은 주말이면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따끈한 순대국밥과 함께 중앙시장의 바지락 칼국수, 장어구이 역시 봄나들이를 재촉한다.



천안에서는 아우내장터의 명물인 병천순대를 꼭 맛볼 일이다. 50여 년 전 병천면 인근에 돼지고기를 이용한 햄 공장이 들어서면서 잡채 대신 채소와 선지로 속을 꽉 채운 순대가 탄생했다. 이곳 장터에는 대를 이어 순대를 만드는 집이 있을 정도다. 단골들 역시 전국 각지에서 병천순대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이곳 순대국밥은 돼지사골을 푹 우려낸 국물에 먹음직스럽게 썬 순대와 머리고기를 듬뿍 얹어 낸다. 순대국밥 한 그릇이면 속이 든든해진다. 순대거리에서는 ‘고향순대’ ‘아우내순대’ 등이 이름나 있다.



천안 중앙시장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칼국수집이 유명하다. ‘계명집’ 등 30년째 명맥을 이어온 곳도 있다. 주메뉴는 조개탕과 칼국수로 단출하다. 칼국수에 곁들여진 바지락은 봄이 되면 진가를 발휘한다. 본래 “진달래꽃 필 때 바지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4월 바지락은 살이 싹하고 쫄쫄득득하다. 통통한 바지락을 먼저 맛본 뒤 국물을 부어 칼국수를 먹는 방식 또한 독특하다. 바지락과 고춧가루만으로 우려낸 국물은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을 낸다.



천안에서 아산방조제를 잇는 길목에는 장어 식당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이곳 민물장어는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담백하고 육질 좋은 장어 맛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육질도 중요하지만, 장어구이는 역시 입에 짹짹 달라붙는 양념 맛이 포인트. 양념에는 마늘, 한약재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 양념을 껍질에 넉넉하게 발라내는 게 또 중요하다. 장어는 불에 올리면 기름이 지글지글 풍부하게 올라오며 부드러운 맛과 깊은 향을 낸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 발간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개원 후 통일사법센터를 중심으로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분석·연구하고 통일 후의 사법질서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해 화제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글_편집부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우리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체제 및 법질서가 전혀 다른 북한 사회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자유·민주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법원에서 발간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안내 책자이자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른 책자에서 다루지 못한 민사·가사·형사 등 각종 재판절차에 대한 안내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개원 후 통일사법센터를 중심으로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분석·연구하고 통일 후의 사법질서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에는 통일사법 분야에서 최초의 연구보고서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통일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모은 『통일사법정책연구(3)』를 발간하는 등 계속하여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사법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발간된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계획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의 발간을 추진하였고, 드디어 이번에 그 결실을 맺었다”며 대한민국에서 법적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가 되기를 바랐다. c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

〈주요 내용 발췌 소개〉

Q 법률 상담·소송 지원은 왜 필요할까요?

법률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 막막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쉽게 법률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상담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상담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문제를 상의하면 됩니다. 상담을 할 때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을 더 배려하는 상담사 또는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적 지원은?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적 지원으로는 크게 ①민사 사건과 가사 사건에서의 소송구조제도와 ②형사 사건에서의 국선변호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각종 사건의 접수·증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구조제도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민사재판과 가사재판을 신청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별도로 따지지 아니하고 소송에서 질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민사재판과 가사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원의 종합민원실은?

전국의 법원은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찾아가면 민사, 형사, 가사 등 사건과 관련한 접수·증명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각종 신청서류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각급 법원에 설치된 장애인, 외국인 우선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었으므로 우선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남북의 법률용어 차이(예시)

대한민국의 용어	북한의 용어
법원	재판소
피의자	피심자
피고인	피소자
매매계약	팔고사기 계약
임대차계약	빌리기 계약
전매	되거리
예금계좌	돈자리
횡령	탐오랑비

일상으로의 초대

글_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입니다. 사법보좌관은 제천에서 처음 담당했는데 그때는 사무과장 겸 사법보좌관으로서 사무과장이 주된 보직이었고, 작년 하반기에 서울로 발령 난 이후 사법보좌관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그 시절을 떠올리면 농 삼아 그때 제 왼쪽 귀가 0.5cm는 얇아졌을 거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당시 제천은 가본 적도 없고, 사무과장이 제 감냥에 넘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고, 사무과장도 사법보좌관도 초임인 데다 혼자이다 보니 문의 전화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무과장 업무와 관련해서 전화할 일이 생기면 인근 3개 지원인 충주, 영동, 영월에 항상 세트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천지원이 스포츠 강국입니다. 다들 한 심마니 하시는 데다 씩씩하고 열정적 이어서 이런저런 행사들로 재밌는 일들이 많았지만, 자릿값은 해야 하다 보니 고심하게 된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 장면들은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두 분의 지원장님과 제천 가족들, 그리고 필요할 때 슈퍼맨처럼 딱 나타나 코치해주는 본원의 도움이 있어 무사히 직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쿨하게 얘기하자. 쿨하게 검토할 테니 쿨하게 받아들이자. 사무과장 시절부터 모토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쿨하게’가 대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방법이 어렵죠. 내 제안이나 고민이 과장 단계에서 기각될지 알 수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기각시키지 말고 얘기해보자, 가사 과장이 인용을 안 해줘도 얘기라도 해봤으니 속이라도 시원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이기도 하고, 과장 입장에서는 검토할 일이 생겨 머리아프겠지만 그래야 법원 돌아가는 사정이나 개인 사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랬습니다.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채택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하면 참지 마라. 단 떠먹여 주자. 사법지원실에서 근무한 경험 때문인지 규정이나 전산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활용하면 이렇게 좋은 게 없고 그에 따라 업무만족도가 왔다 갔다 하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장 시절이나 지금이나 직원들에게 ‘불편하면 참지 마라, 법원 제안이나 제도개선 건의를 잘 활용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보면 상품권도 받을 수 있지요. 요즘은 전통시장 상품권이 옵니다. 저도 잘 안 참는 편이어서 불편하면 검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시작한 김에 제안이 통과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0 정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7 정도는 채워서 제안을 해보십시오. 시스템 화면도 캡처해서 붙이고요. 법원행정처에 계신 분들은 일도 많지만, 우리처럼 일선에 있다가 올라간 분들이라 별 사람 없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 칠십 퍼센트 정도는 떠먹이듯 제안을 하면 검토자가 편할 겁니다. 그 와중에 제안자 스스로 없다고 생각한 기능을 발견하게 되는 일도 있어 무익한 제안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법보좌관. 작년 하반기에는 본관에서 독촉절차, 소송 비용, 집행문 등의 업무를, 지금은 4별관에서 경매, 채권 압류, 집행비용, 재산조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있을 때는 혼자다 보니 사법보좌관실무연구회 커뮤니티와 친한 사법보좌관님들에게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할 분이 많지만, 특히 동갑내기이자 동기인 안소울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된 희생자였거든요. 서울에 와서 좋은 건 동료 사법보좌관님들이 많이 계셔서 토론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는 사법보좌관님들께 이심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리 건수의 자긍심과 미제 건수의 스트레스. 본관에서 지급명령을 담당할 당시 금융기관들은 서울중앙지법의 독촉절차 담당자들을 매일 용단폭격했습니다. 제 사건을 기준으로 기억을 더듬어보면 자산유동화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때문인지 양수금 사건이 많았는데, 그것도 한 건당 서너 번 정도는 양도가 이루어진 다수의 채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청구원인의 소명이 전제조건이라 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업무도 해야 하는 저로서는 공시만 해도 매주 수백 건을 처리하면서 채권별로 소명 여부를 살피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공시송달 시행 초기라 요건 해석에 관하여 자료가 많지 않은데, 청구원인 미소명의 경우 공시송달과 친하지 않은 데도 공시송달을 하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판례와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면 요건 불비여도 공시송달이 유효하다는 판례 사이에서 고민하게 돼 더 그랬습니다. 전자로 가면 집행절차에 미칠 영향이 클 테니 실제 집행 불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저로서는 소명 여부를 꼼꼼히 살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사법보좌관 직무연수 때 법관을 기준으로 한 적정 처리 건수에 비추어보면 서울중앙지법의 사법보좌관은 그를 초과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면 빨리빨리 해야 하지만 또 국민을 생각하면 잘해야 하기에 그저 빨리만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

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 건수 이상으로 미제가 남는다 해도 걱정 건수 이상을 처리하고 있을 때, 그는 자 긍심을 가져도 되는 사람인가요?

법원밴드 산들바람. 이 팀은 제 법원 생활의 큰 에너지원입니다. 2010년 뒤늦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복직했을 때 통기타를 연습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 덕에 산들바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법원에 산들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창단 취지도 좋았지만, 당시 법원노조의 발표를 통해 법원에 자살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이란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 모두 악기 하나 정도는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악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고요. 행복함이 있습니다. 도전을 권면하면 자꾸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악으로 먹고살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기준으로는 중산층 되기도 어려운데, 악기 하나면 조선이나 유럽의 중산층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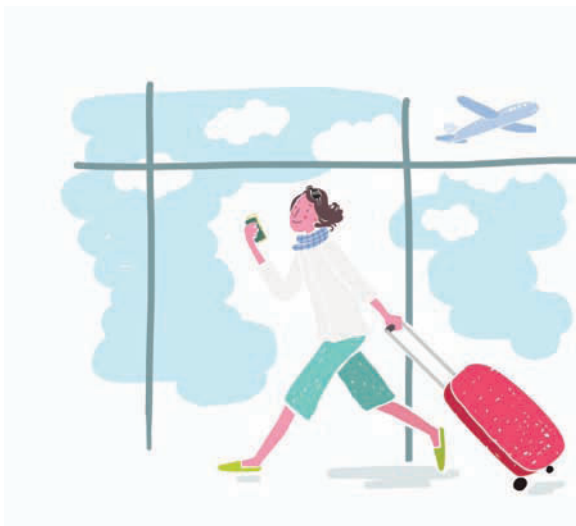
제전으로 발령 나기 직전까지 3년간 산들바람 회장을 했습니다. 산들바람 회장이라고 하면 다들 악기를 잘 다룰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오해인데, 굳이 해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즐기게 되더군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도 누구처럼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합니다만 평생 할 아쉬운 소리는 다 해보고 웬만한 거절은 거의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디오 사연에나 나올 법한 일들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모두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4년 3월 8일 서울, 수원, 군산, 제주 지역의 7개 법원 소속 회원들이 홍대 클럽 프리즘홀에서 한 '60명이 함께 준비한 산들바람 2014 봄 콘서트'입니다. 당시 우리 팀은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 사정상 공연하려면 최소 300만 원 정도는 필요했습니다. 관련 장비들을 임차해야 했으니까요. 돈을 받고 공연할 수는 없었기에 비용 고민이 많이 됐는데, 알아보니 오히려 홍대 쪽 클럽 대관료가 더 싸겠다고 싶었습니다. 물론 거기도 100만 단위를 넘었지요. 고민 끝에 자유게시판에 크라우드펀딩 개념으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유게시판이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공간이라 우려도 있었지만, 무려 60명의 법원 가족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말로만 듣던 홍대 클럽에서 성황리에 콘서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뿌듯했습니다. 이후로 전국법원 밴드축제까지 진행시키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날은 참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곧 창단 20주년입니다. 현 회장 말씀으로는 올해 공연 준비를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 저도 합류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글을 다시 읽어보니 너무 제 위주의 기억과 해석입니다만, 원래 에세이가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다 적지 못한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런지 기분이 좋네요. 이 좋은 기분이 여러분에게 전염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관사가족

글_ 박보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실무관



공감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정서적 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이 협동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많이 잊어버렸고, 아무리 큰일이 나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기쁘거나 혹은 슬프거나’ 둘 중 하나이던 감정은 ‘조금 기쁘기도 하지만 쓸쓸하며 마음 한 편으로는 슬픈 상태’와 같이 복잡 미묘해졌고, 친한 친구 한 명과 같이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호기롭던 예전과 달리 연락처에 500명이 넘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놓고도 외로움을 느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23평 방 3개, 거주자 4명

2016년 9월부터 진주지원으로 신규발령을 받았고 지금까지 관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에서 함께 사는 동안 조금씩 공감하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삶의 방식이 다른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하는 저희 관사 식구들은 공감하는 법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고, 연락처에 저장된 친구 수백 명의 전화번호보다 제 옆에 있는 우리 관사 식구들의 존재가 제 외로움을 많이 없애주고 있습니다. 관사 생활 7개월 차, 다른 법원은 관사 건물이 따로 있어서 대부분 1인 1실이거나 2인 1실로 써서 각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개인적인 약속이 없는 한 뭐든 함께합니다. 같이 퇴근하기, 같이 밥해먹기, 같이 빨래하기, 생일인

사람 파티해주기, 빙고게임, 팔씨름, 심리테스트, 오락실, 만화카페 그리고 같이 여행하기 등등. 서로 같은 부서가 아니고 각자의 업무가 다르면 쉽게 친해질 수 없는데, 저희는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서로 이야기도 잘 들어주어서 쉽게 친해지고 그만큼 법원생활도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 다른 동기나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관사와 같이 지내는 곳은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리 관사 식구들, 관사 라이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사 입성기

관사에 41기 한주희 선배님, 42기 박소현 선배님, 그리고 김혜인 속기사님 세 분이 살고 있었고, 방은 세 개뿐이라 저는 거실에서 관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뽕 뿜린 거실에서의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기우였습니다. 관사 언니들이 정말 처음부터 너무 편하게 대해주었고, 저도 차츰 언니들이 편해지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비록 관사 식구들을 만난 건 1년도 채 안 되지만 한 10년을 알고 지낸 죽마고우 같다고 할까... ^^ 처음에 동기들에게 거실에서 산다고 말하면 다들 '불편하겠다' '힘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좋다고, 관사 들어온 게 법원 생활의 신의 한 수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이렇게 인연이 되어 한곳에서 만나게 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쓰는 관사의 좋은 점

요즘 겨울은 추워도 너~무 추워, 매서운 바람을 피해 한껏 움츠린 겨드랑이 사이로 작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여유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할까. 얼어붙은 마음은 나 아닌 누군가를 돌아볼 조그마한 틈새조차 허용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조인 팔짱 사이로 바람이 조금은 스며들 공간을 만들어 보게끔, 좁은 공간으로 따뜻한 사랑이 깃들 수 있는 작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관사 식구들이 조금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물론 훌륭한 전임자를 만난 것도 있지만, 한 번 물어본 것을 다시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사에서 밥 먹으면서도 물어보고, 이렇듯 갑자기 생각난 질문에 언니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보다 빠르게 일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사회경험도 많지 않았고, 사회경험이라 해 봤자 강사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삶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는데 선배 언니들에게 무임(?)승차할 수 있었지요. 주희 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는데, 같이 관사에서 밥을 해 먹을 때 찌개류를 어떤 조미료 첨가 없이 기가차게 만들고, 즉석에서 반찬 서너 개는 푹푹푹 만들어 냅니다. 저도 옆에서 도와주다가 언니에게 요리법을 배워 이젠 별 탈 없이 찌개 하나 정도는 잘 끓일 수 있습니다. (하하하) 소현 언니는 모든 방면에 지식이 많은데,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습니다. 4월에 제 여동생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동생을 도와주고 싶지만 결혼준비에 대해 무지한 저는 작년에 결혼한 소현 언니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아 여동생에게 든든한 언니가 될



Memory



수 있었습니다. 또 소현 언니는 한 명이라도 소개팅이 있다 싶으면 옷 코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까지 알려주며 도와주는 큰 산 같은 존재입니다. 헤인이는 늘 긍정적인 친구여서 같이 있을 때면 힘든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친구였습니다. 올해 1월에 마산지원으로 갔지만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사에 들어온 전보람 가사조사관 언니는 처음에 어떤 성향인지 몰라 걱정했는데 저희와 같이 불임성 좋고 사람 좋아하는 분이라 다행히 하루 만에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가사조사관 언니가 심리학을 전공하셔서 오자마자 심리테스트를 해달라고 조르자 심리테스트도 해주었습니다. 관사에 살지 않았다면 잘 몰랐을 속기사, 가사조사관의 업무와 특성을 이 두 사람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누구라도 힘든 하루를 보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관사 식구들은 함께 걱정하고 위로해줍니다. 강변 산책, 오락실, 보드게임 등을 통해 기분전환을 같이하면서 서로 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각자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여자 넷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면박을 주지만, 제가 관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혼자 끙끙 앓았을 고민들을 함께 관사 식구들과 나눌 수 없었을 거고, 지금보다 법원 생활이 힘들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관사 생활을 통해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4명에서 관사를 이용하는데, 관사 내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씻는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준비하기로 하였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중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아침형 인간이 되다 보니 좀 더 여유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별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듯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관사 구성원은 달라집니다. 물론 평생을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별이 있을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순 없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여고생이 울면서 힘든데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냐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고생을 처음 봤음에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비록 한 모바일 방송국의 실험 카메라였지만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포옹의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한때 프리허그가 유행한 것도 포옹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들 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체온과 격려의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늘 가까운 거리에서 가족처럼 오늘도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힘껏 껴안아주는 관사 식구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의 법원 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준 모든 관사 식구들에게 이 글을 통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



작년 연말 아들이 다니는 피아노학원 공고란에 피아노 콩쿠르 안내문이 붙었다. 평소 피아노 연습도 잘 하지 않던 아들 녀석이 대뜸 콩쿠르에 나가겠다고 했다. 콩쿠르 곡은 그 무렵 학원 진도에 따라 연습하고 있던 소나티네 14번(모차르트 소나타 K.545)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그 곡은 초등학교 4학년 지정곡 중 하나였다. 녀석은 콩쿠르 경험이 없으니 별 생각 없이 대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눈물을 쏟은 콩쿠르 경험이 있어 걱정이 앞섰다.

나도 아들 녀석과 비슷한 나이이던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아노 콩쿠르에 나간 적이 있다. 당시 우리 집은 거제도 고현에 있었고 거가대교가 없던 시절이라 아침 일찍 학원 원장님과 학원생들이 봉고를 타고 부산까지 가야 했다. 어떤 신문사에서 주최한 콩쿠르였다. 어린 시절 기억이어서인지 무대가 매우 넓고, 관객이 많았던 것 같으며, 난생처음 실물로 대한 그랜드 피아노는 아주 거대했다. 차례가 되어 피아노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 거리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 그랜드 피아노에 열쇠 구멍이 없어 중간 ‘도’를 빨리 찾지 못해 당황했던 것 같다. 어찌어찌하여 피아노 중간쯤 자리를 잡고 앉은 후 숨을 고르고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다. 첫 음은 내가 주도적으로 친 것 같은데 그 후부터는 수도 없이 반복한 연습 덕분인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러다가 너무 빨라지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될 정도였다. 나는 손가락 길이가 짧은 편인데 콩쿠르 곡 중 한 옥타브를 다소 빠르게 여러 번 쳐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소 빠르게 잘 움직이던 손가락들이, 이 부분에서 짧은 손가락

탓인지 한 옥타브 양 끝을 다 치지 못하고 위의 음만 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곡의 속도를 늦출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심사위원들이 잠시 후 그만치라는 종을 울렸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좀 더 많이 치고 싶었는데 심사위원들은 다른 학생들과 같이 주제가 반복되는 부분에서 어김없이 종료 벨을 울렸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심사위원들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한 실수를 알고 수군거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오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 보기 부끄러워 건물 밖에 나가 엉엉 울고 있는데, 같이 온 선생님이 손수건을 내밀며 괜찮다고 들어가자고 말 씀하셨다. 하지만 당시 나는 “상도 못 받을 건데 들어가기 싫어요”라며 한동안 밖에서 울었다. 내 기억에는 그렇게 밖에서 한참 울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 “울지 마. 너도 최우수상 받았어”라고 알려주었다. 예상치 못한 혼란스러운 결과에 얼떨떨했다. ‘내가 속도감 있게 계속 곡을 연주해서 다들 내 실수를 눈치채지 못한 건가?’ ‘박자와 음의 강약만 맞으면 상을 받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어쨌든 우리 학원의 학생들은 모두 상을 받았고, 그중 대부분은 최우수상이었으며 나머지는 우수상이었다(피아노 콩쿠르의 상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지 늘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나의 콩쿠르 경험은 결과는 좋았으나 무대에서 너무나 떨렸고 실수를 한 것에 대해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 때문에 아들이 콩쿠르에 나가겠다고 하자 걱정이 앞선 것이다. 아이들은 지난해 부산으로 전학 오면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아들 녀석은 속마음과 달리 말과 행동이 거친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 학교 가는 것조차 꺼렸는데 과연 힘든 콩쿠르를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해보겠다고 하고, 이번 과정을 통해 녀석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허락했다.

겨울방학인 1, 2월에 본격적인 콩쿠르 연습이 시작되었다. 녀석은 평소 학원에서 1시간 레슨을 받는데, 여기에 1시간을 더해 콩쿠르 곡을 연습하게 됐다. 녀석은 학원에서 하는 연습시간이 길다고 불평하고, 이를 핑계로 집에서는 연습을 하지 않으려 해 나와 신경전을 벌였다. 처음에는 기교적인 부분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레슨과 연습 시간이 쌓이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런데 곡의 속도가 들





쑥날쑥한 것은 잘 고쳐지지 않았다. 소나티네 14번은 1980년대 영창피아노 텔레비전 광고에도 나온 곡으로, 물방울이 풀잎에서 구르듯이 부드럽고 경쾌하게 쳐야 한다. 그런데 녀석의 연주에서는 물방울이 구르는 것이 잘 연상되지 않았다. 콩쿠르 날짜는 다가오는데 곡을 매끄럽게 소화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집에서 한 번씩 치는 것을 보면 실수가 없는 경우가 없었다. 콩쿠르 날짜가 다가오자 스스로도 부족을 느꼈는지 녀석은 “콩쿠르 나가지 말까?”라는 말까지 했다. “네가 한다고 했으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또는 “부담 갖지 말고 경험 삼아 한번 해봐. 상 못 받아도 괜찮아”라는 충고와 격려를 하면서 녀석이 콩쿠르를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마치기를 바랐다.

드디어 콩쿠르 당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는 대회를 위해 시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총출동했다. ‘아침에 집에서 연습할 때도 꼭 한 군데는 실수를 하던데, 실전에선 더 떨릴 텐데 어찌지?’ 나 혼자 속으로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대회장으로 향했다. 장소는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시쯤 도착하여 대회장으로 들어가니 3학년 자유곡 순서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중에는 아들 녀석과 같은 곡을 자유곡으로 연주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너무나도 매끄럽게, 정말 물방울이 풀잎에서 구르듯 연주하는 것이 아닌가! 녀석도 속으로 엄청 놀라는 것 같았다. 녀석은 그 3학년생 아이가 연주를 마치자 놀란 듯이 “정말 잘하네!”라고 말했다. ‘평소 좀 더 열심히 하지!’라며 면박을 주고 싶었으나 꼭 참았다. 잠시 후 “4학년 지정곡 참가자들 무대 뒤로 모이세요.”라는 방송이 나왔다. 녀석이 5번째로 연주하게 되었다. 차례가 되어 애가 피아노를 향해 걸어가는데 마치 내가 다시 콩쿠르에 참가하는 것처럼 떨렸다. 반

면 녀석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냥 적당히 가운데쯤 앉아 바로 연주를 시작했다. ‘도 미술 시도레도~.’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았다. 그리고 잠시 후 평소 실수가 잦던 그 부분에 이르렀다. 녀석이 실수하면 어쩌나, 실수 후 당황해서 더 이상 연주를 못 하면 어쩌나, 나는 도저히 떨어져서 그 부분부터는 연주하는 것을 쳐다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고 잔뜩 긴장한 채 귀만 기울였다. ‘어?’ 집에서는 자주 실수를 했는데 무대에서는 끊이지 않고 그 부분을 잘도 넘겼다. 계속 고개를 돌린 채 듣고 있는데 다른 실수도 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했다. 잠시 후 다음 주제로 넘어갈 무렵 종료 벨이 울렸다. 그제야 나는 무대 쪽을 볼 수 있었다. 녀석이 ‘휴’ 하고 작게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무대를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기교가 아주 좋거나 흐름이 아주 매끄러운 연주는 아니었지만, 마지막 연습 때까지도 한 군데씩 틀리던 녀석이 실전에서 떨지 않고 실수 없이 연주를 마친 것이 너무나 대견했다. 녀석이 관객석에 오자마자 “잘했어. 진짜 잘했어!”라며 어깨를 몇 번이나 토닥여주었다.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지만 처음 나간 콩쿠르에서 떨지 않고 침착하게 연주를 잘 마친 녀석은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상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녀석도 콩쿠르를 무사히 마친 것이 기쁘고 뿌듯한 것 같았다. 지난해 학교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의욕이 없고 힘이 빠져 있던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했다.

대회장에는 촬영을 금하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부모들은 모두 자기 아이의 연주 장면을 찍고 있었고 그중에 아들 아빠와 할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덕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의 연주 동영상을 보고 또 보았다. 다시 봐도 흐뭇했다.

콩쿠르 결과가 당일 발표된다고 했는데 저녁 시간이 되도록 원장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역시 상은 받지 못했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나를 어려운 일을 잘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다. 한편으로 다른 학원생들은 상을 받는데 자신만 상을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됐다. 다음 날 오후, 원장님에게서 ‘○○이 2등 했어요. 대상 1명, 준대상 2명, 1등 5명, 2등 5명, 3등 8명이니까 4학년 지정곡 부분 13명안에 든 거네요. 축하해요!’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2등상이라니 기대 이상이었다. 녀석에게 수상 소식을 전하니 빙그레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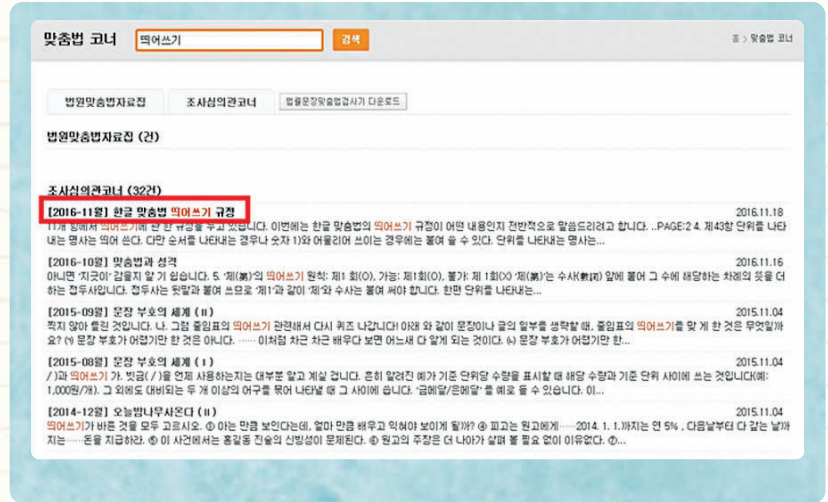
지난해 인사이동 후 이사 과정이 순탄치 않아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알아서 잘 적응하러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며 적응을 잘하지 못했다. 그런 아이들을 그대로 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힘들게 근무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6개월간의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 아들 녀석의 콩쿠르는 단축 근무 1주일 후에 있던 일이다. 다음 날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2시까지 단축 근무를 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의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이야기가 한바파리다. 하교 후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는데 간식을 손수 챙겨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이들과 운동도 시작했다. 아들 녀석과 내가 경험한 콩쿠르처럼,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에 보람과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

신임 조사심의관의 고백

글_이기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번 2월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맞춤법, 특히 띄어쓰기를 잘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효율을 중요시하는 공학, 그 중에서도 산업공학을 전공해서인지 '맞춤법은 의사소통의 정확성,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가독성을 저하하는 띄어쓰기는 의미가 없다'는 등의 생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굳이 “3,000만원”으로 붙여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고칠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법원도서관의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관계로 저는 한글맞춤법, 띄어쓰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맞춤법의 용례를 설명해 드릴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용할 도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개하려는 것은 ‘열린법률지식백과’의 ‘맞춤법 코너’입니다. 코트넷 원편의 단추들 중 하나에 ‘열린법률지식백과’가 있는데, 이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의 오른쪽 아랫부분의 3개 동그라미 중 첫 번째로 ‘맞춤법 코너’가 있습니다(사실, 부임 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를 누르면 상단에 ‘법원 맞춤법 자료집’, ‘조사심의관 코너’ 탭이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법률문장 맞춤법 검사기 다운로드’ 단추도 있습니다.

‘법원 맞춤법 자료집’ 부분은 법원도서관에서 발간된 ‘법원 맞춤법 자료집’(전정판)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종이책의 편집이 잘 되어 있어 사실 가독성은 종이책이 더 낫습니다. 종이책도 많이 헛갈리는 단어들이 가나다 순서로 잘 열거되어 있어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책이 없거나 특정 주제어로 검색하려는 경우 ‘맞춤법 코너’에 가시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의 ‘조사심의관 코너’에는 2008년 8월호부터 <법원사람들>에 게재된 조사심의관 코너 내용이 모두 실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단의 검색창을 통해 조사심의관 코너의 내용도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 ‘띄어쓰기’라고 검색하면 2016년 11월호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나운민 전임 조사심의관이 작성한 띄어쓰기 일반론에 관한 글이 나옵니다. 이를 클릭하면 원래 모습의 원고가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2016년 11월호 <법원사람들>을 찾아볼 필요 없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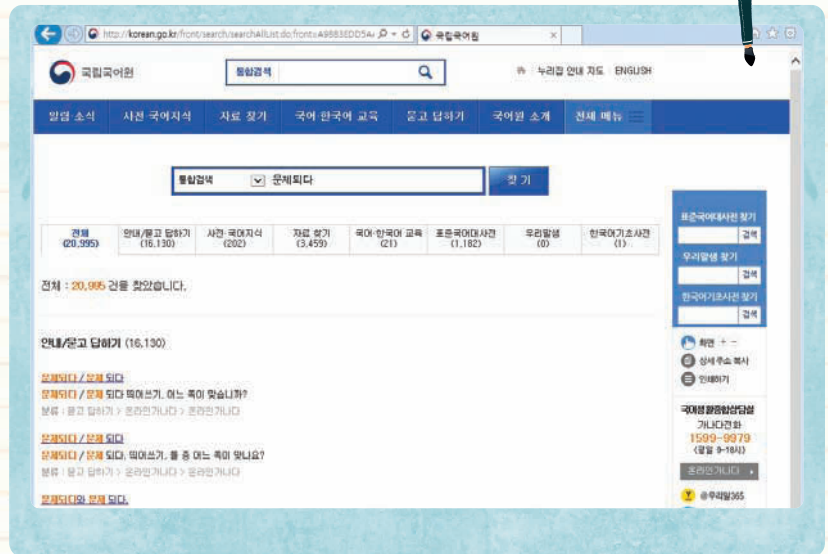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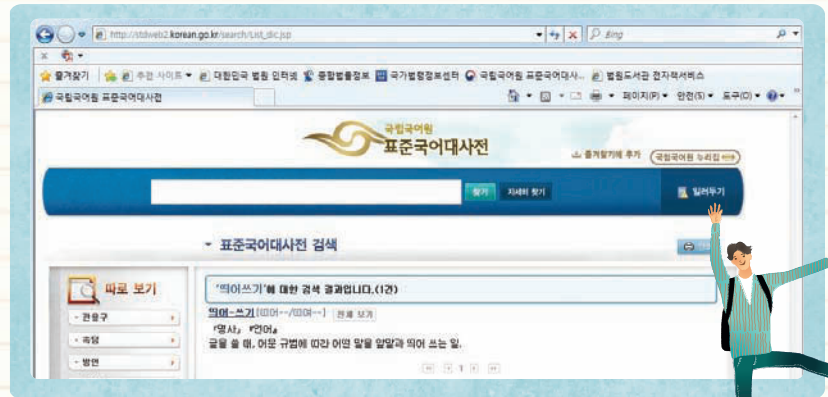
그 옆의 ‘법률문장 맞춤법 검사기 다운로드’ 단추를 클릭하면, 파일을 실행 또는 저장하겠느냐고 묻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를 설치하면 한글 문서편집기에서 F8을 눌러 맞춤법 검사를 실행할 때 ‘법원 맞춤법 자료집’(전정판) 내용이 모두 반영되고 오류 유형에 따른 45,000여 개의 도움말이 담긴 특화된 맞춤법 검사기가 실행됩니다. 검사



대상 문장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간단하게 올바른 표현으로 고치는 기능도 제공됩니다(이용 안내는 코트넷 전자마당에서 ‘법률문장맞춤법검사기’로 검색하시면 나타나는 2016. 1. 21. 게시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설치된 후 자동으로 컴퓨터가 재시작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을 쓰면서 일일이 맞춤법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선 생각의 타래를 풀어놓은 후 마지막에 한꺼번에 맞춤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율적인 글쓰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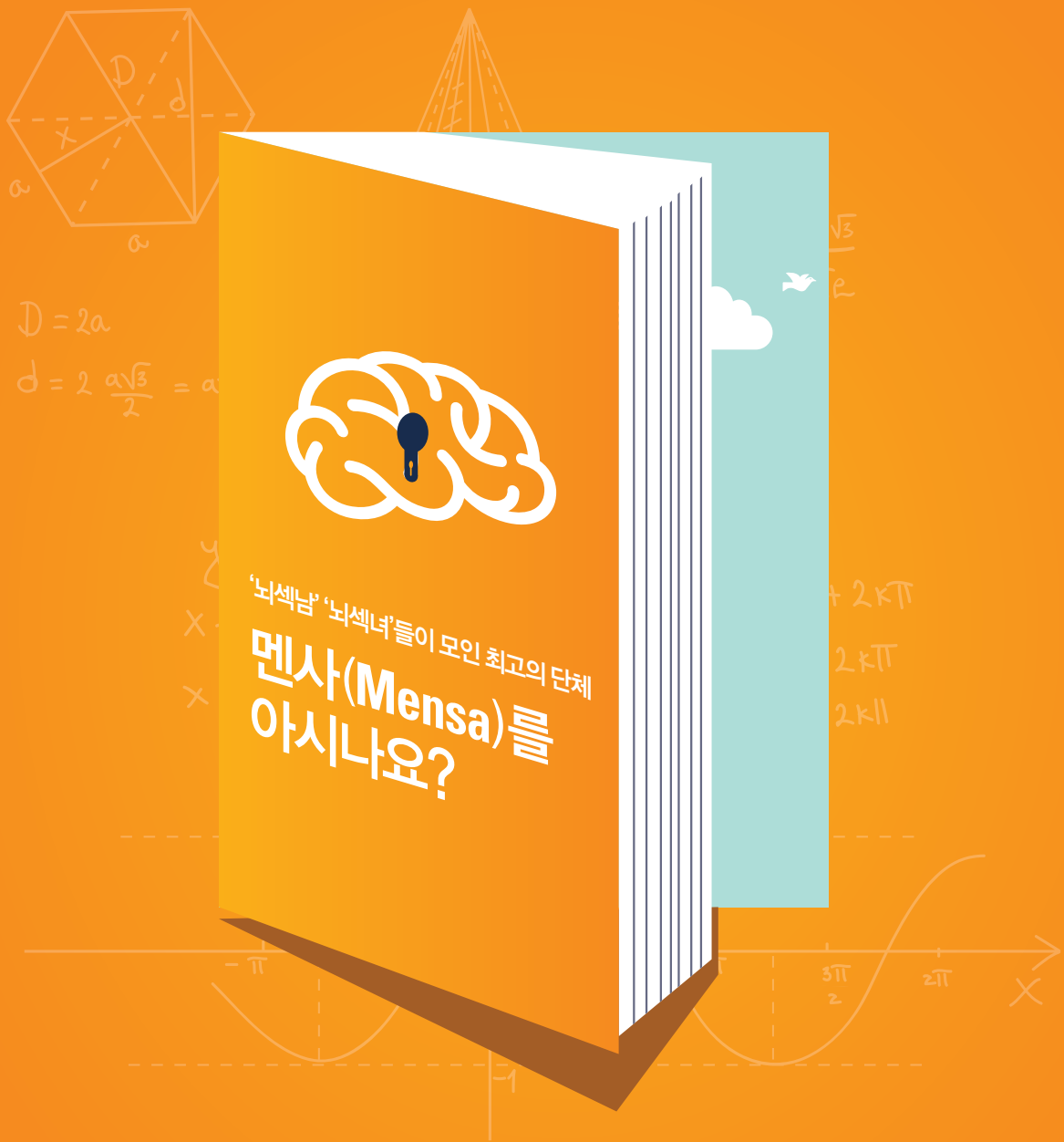
제가 앞으로 수없이 많이 이용할 또 하나의 도구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웹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망 분리가 된 법원에서든 가상 PC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주소창에 “stdweb2.korean.go.kr”라고 입력하고 즐겨찾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띄어 써야 하는지 궁금할 때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인, 이 웹페이지 검색창에서 한 단어로 검색해 봤을 때 검색 결과가 없으면 띄어 쓴다는 것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므로 검색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띄어쓰기’는 한 단어로 검색되는 반면, ‘띄어쓰다’는 검색 결과가 없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의 “묻고 답하기” 내용도 앞으로 많이 참고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망 분리된 법원에서는 가상 PC를 이용하여 접속해야 합니다). 첫 화면의 ‘통합검색’ 창에 ‘띄어쓰다’라고 입력하면 두 번째 검색 결과로 ‘띄어쓰다, 띄어쓰기’ 게시물이 나타나고, 이를 선택하면 답변과 간단한 설명이 나타납니다(그 설명에 의하면 ‘띄어쓰다’는 띄어 쓴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되다’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 검색 결과로 문제되다 / 문제 되다 띄어쓰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게시물이 나타나고, ‘3년여’를 검색하면 ‘3년’과 ‘여’를 붙여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옵니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여’를 검색하면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라는 설명이 나오고 단어 옆의 “전체보기” 단추를 누르면 붙여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용해 본 분들 말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좋은 자료가 있을 텐데, 너무 탓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판례공보 작업도 아직 서투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못된 점을 알려주시면 곧바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에 있는 분들의 마음씨를 생각하면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희망찬 마음으로 새로운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면서, 저의 고백을 이만 마칩니다. ☺



요즘 '뇌섹남' '뇌섹녀'가 대세다. '뇌가 섹시한 남자와 여자'들, 그들을 일컫는 최고의 기준은 멘사(Mensa)가 아닐까.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일반 연구의 상위 2%에 드는 지적 능력을 가입 조건으로 하는 단체인 멘사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 인지도가 팍팍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지식(知識)과 지혜(智慧)를 겸비한 뇌가 섹시한 법원 사람들과 독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멘사(Mensa)를 소개한다.

최근 멘사가 화제다.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에서 박경의 멘사 합격이 알려지면서 그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다. 또 멘사 회원인 가수 휘의 최연소 성신여자대학교 전임교수 임용 소식은 멘사 회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이, KBS ‘1박2일’에서 가수 김종민이 멘사 테스트를 받아 일반인들에게 멘사에 대한 친근함까지 안겨줬다. 도대체 ‘멘사’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에 이토록 관심이 뜨거울까.

멘사는 상위 2%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

멘사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일반 연구의 상위 2%에 드는 지적 능력을 가입 조건으로 하는 단체다. Mensa는 라틴어로 ‘테이블’, mens는 ‘마음’, 그리고 mensis는 ‘월’을 의미한다. 따라서 멘사를 통해 ‘마음, 테이블, 월’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 테이블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멘사는 1946년 두명의 법조인에 의해 영국에서 창설... 현재 100개국 11만 명 이상이 가입

멘사는 롤랜드 베릴(Roland Berrill)과 란셀롯 웨어(Lancelot Lionel Ware)에 의해 1946년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설립됐다. 베릴은 호주 출신 변호사였고, 웨어 박사는 국립의료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지능검사에 관심을 갖게 된 예비 변호사였다. 이처럼 멘사는 두 명의 법조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우연히 기차에서 만난 후 지속적으로 교신했다. 주로 웨어 박사의 오랜 숙원이던 단체의 창설에 관해서였다. 1946년 웨어 박사는 베릴에게 카텔(Cattell) 3 지능검사를 실시했고, 베릴은 곧바로 지지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1946년 10월 1일, 베릴은 첫 번째로 멘사 문헌을 출간했는데 이날이 멘사 창립일로 알려졌다. 오늘날 100개국 이상의 회원 11만여 명을 기반으로 멘사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멘사의 목적

01

인류를 위한
인지(人智)의
증명과 육성

02

지성의
본질, 특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장려

03

회원에게
지적·사회적
자극
환경 제공

뛰어난 머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멘스코리아’

멘스코리아의 역사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첫 모임은 1995년에서 1996년 사이에 있었다. 국내의 국제멘사 회원들이 만나 한국 멘사의 발족을 논의하면서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영국에 소재한 국제멘사(Mensa International Ltd.)와의 협의를 거쳐 1996년 5월 중앙일보에 멘사에 관한 소개 기사가 게재되면서 멘사가 한국에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1996년 7월 대한생명 63빌딩에서 최초의 한국 멘사 가입 테스트가 실시됐다. 멘사에 대한 높은 대중적 관심을 반영하듯 150여 명이 응시해 66%의 통과율을 기록하며 멘사는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륙했다.

멘스코리아는 뛰어난 두뇌만큼 마음도 따뜻하다. 멘스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계속된 국내 혈액 보유량 부족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헌혈증 120장을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자원봉사대를 파견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뛰어난 두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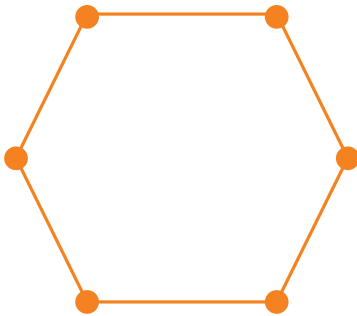
멘사 가입 요건

멘스코리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그 이후 가입 절차를 거치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테스트 결과, 상위 2% 미만인 경우 12개월 이후에 재테스트 응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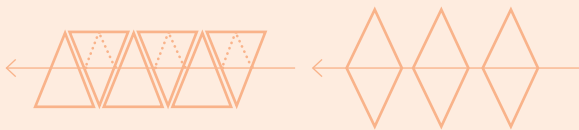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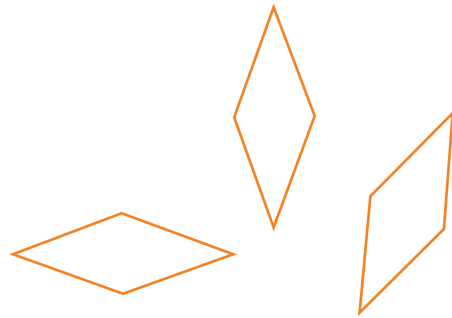
Quiz

당신도 멘사 회원이 될 수 있다! 멘사코리아가 제공하는 재미있는 두뇌 테스트

- 1 다음 그림과 같이 6개의 성냥개비로 만든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에 성냥개비를 추가하여 크기와 모양이 같은 사각형 6개를 만들려면 최소 몇 개의 성냥개비를 추가해야 할까요?



- 2 그림과 같이 똑같이 생긴 3개의 치즈 조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8명 이서 똑같은 양으로 나눠 먹을 수 있게 자르려면 최소 몇 번을 칼로 잘라야 할까요?
(치즈 조각의 위치는 옮겨도 되며 꼭 8조각으로 잘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 6개
1. 정답 : 6개

정답 : 2번

정답 : 6개

“성·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에 오늘 대법원 견학은 큰 도움이 될 듯”

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교육생의 대법원 견학

글_김화숙 사진_최항석



오늘 대법원을 찾은 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생들은 교육과정을 수료 후 성·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전문 상담사의 길을 걷게 된다. 법원과의 인연의 끈도 놓을 수 없는 만큼 오늘 방문은 남다른 소회를 남길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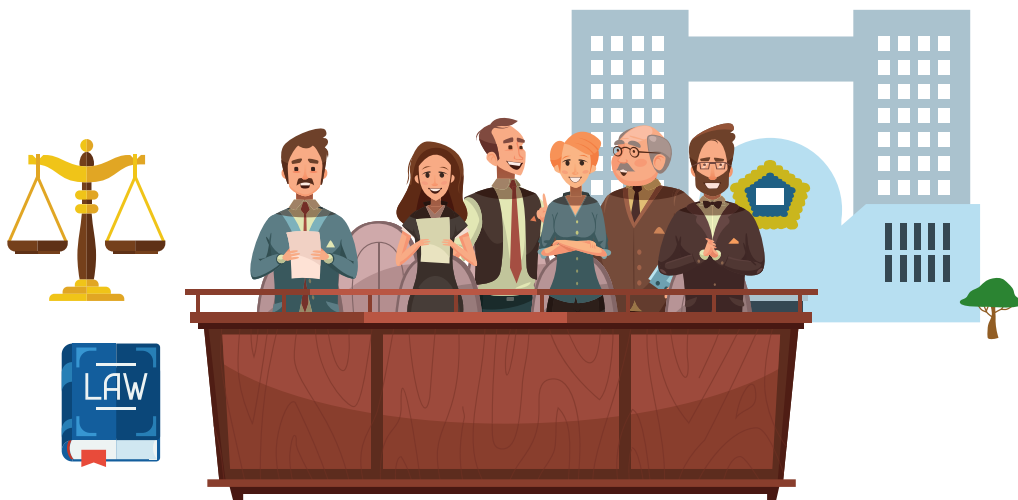
초대 손님들은 법원전시관과 대법원 사법부 홍보 동영상을 관람한 후 대법원 중앙홀로 이동했다.

“저 위에 보이는 정의의 여신상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은 한복을 입고 무궁화로 장식된 의자에 앉아 법전을 들고 있어요. 해외여행 시 그 나라 법원 최고기관을 방문해보는 것도 남다른 재미가 있을 듯해요.” 이현영 실무관의 친절한 설명은 소법정과 대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때 예리한 질문 하나가 던져졌다. 3심에는 증인석이 없다는 것. 이현영 실무관은 증인 신문은 1, 2심에서 이뤄지며 3심에서는 법률심으로만 진행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용민 판사와의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김용민 판사는 오늘 초대 손님들의 직업을 고려해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 “1심인 지방법원에는 단독판사와 합의부가 있는데 성폭력 같은 큰 사건은 합의부에서 처리합니다. 일반 인들은 ‘상소’의 의미도 궁금할 텐데, 어떨 땐 항소, 어떨 땐 상고를 쓸까요? 소를 제기할 때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은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은 ‘상고’라 하며 이를 합쳐 ‘상소’라고 합니다.” 새로운 법률 상식을 알게 된 초대 손님들은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쏟아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판결문 쓰는 게 힘들고 신경도 많이 쓰입니다. 작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협박이나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기록과 피고인, 증인을 놓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김용민 판사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질문들이 쏟아졌다. “성폭력자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특히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면죄부를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민 판사는 질문자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에서도 양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유사사건들의 다양한 판례를 면밀히 검토 후 양형을 내리고 있어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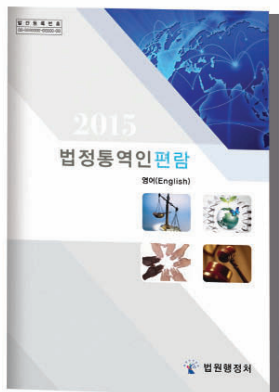
“처음에는 판사님을 뵙는다는 생각에 긴장했는데 직접 만나 보니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인 것 같아요. TV 뉴스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대법원의 실체를 봐서 감회가 새로웠고, 법원조직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어 유익했어요.” - 최윤민 -

지금은 글로벌 시대, 외국인 재판 통역지원 현장 및 통역지원제도를 만나보다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한민국의 재판정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과 이주민 수 증가로 국내에서 제기되는 외국인 소송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우리 법정에서도 꽤나 많은 외국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이들에게 재판정에서의 통역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 <법원사람들>에서 외국인 사건 통역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글_이경희 사진_고인순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재판정의 변화

3월○○일 오전 11시, 중앙지법 재판정에 몽골인 두 사람이 들어섰다. 한 사람은 피고인, 한 사람은 통역인으로 입장한 두 사람은 각자의 신분제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앉는다. 모두 착석하자 지체 없이 몽골어 통역이 포함된 재판이 시작됐다.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중하게 진행된 재판에서 통역인의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기소 내용이나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은 물론 재판 과정의 절차까지 세심하게 통역해야 하는 것. 이날 통역인은 행여 자신의 통역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까 신중하게 듣고 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도 막힘없이 통역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날 재판을 맡은 나상용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 상황까지 통역인으로 하여금 꼼꼼하게 통역하도록 지시했는데, 피고인의 단답형 대답까지도 명확히 통역하게끔 요구하는 모습이 매우 치밀하고 꼼꼼해 보였다.



외국인 재판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노력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 통·번역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수는 2017년 2월 기준 1,873명이다. 통·번역이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프랑스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스페인어, 독일어, 네팔어,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등 20여 개 안팎으로 그 범위가 꽤 넓다.

법정에서 외국인 재판 시 사실관계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통·번역이기에 각 법원에서는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에 따라 통역 경력·성실성 등을 고려해 통·번역인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정훈 사무관은 “국내 외국인·이주민 수 증가로 외국인 소송사건 수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통역인들에게 외국인 관련 소송에서 정확한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통역 인편람>을 형사는 물론 민사, 가사, 신청 등 실제 재판 진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16개국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우즈베키스탄어, 필리핀어, 태국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로 개정·발간하였다”며 “외국인에 대한 절차적 사법지원 강화 방안으로 법정 통역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 글로벌한 사법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법서비스와 지원 또한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질의 통·번역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 글로벌 국가의 초석으로 든든히 자리 잡기를 바라본다. ☐

MINI Interview

“외국인 피고인일 경우 정확한 통역 진행에 가장 신경 써”

서울중앙지방법원 나상용 재판장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재판 진행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통·번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요. 외국인 재판인 경우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재판장으로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고, 법원에서 엄중한 절차와 교육을 거쳐 통역인을 선정한 만큼 그 기량을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확한 통역을 위한 통역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 진보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학력과 소양을 갖춘 통역인들 덕분에 든든”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은경 참판관

통역인의 스케줄을 조율하는 업무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통역인과 법원의 상호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도 법원에서 요청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시간을 맞춰 통역을 해주시는 통역인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함을 느껴요. 통역인들이 법률 용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학력과 소양을 충족하는 통역인들 덕분에 든든합니다.

“동포인 피고인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최선을”

통역인 다와자르갈(몽골)



한국에 온 지는 7년 됐고 현재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법원 통역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 2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어요. 법률 용어가 어렵긴 했지만, 통역인으로 선정된 이후에 교육도 받고 책을 받아서 공부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적응했습니다. 제 일에서는 피고인의 말을 100%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포가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하기에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다듬는 수준에서 가감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꽃피는 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양성주
법원행정처 실무관

법원 사람들의 새로운 스타일 도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로, 헤어부터 의상까지 스타일 변신의 기회를 드립니다.





꽃피는 봄 4월 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양성주 실무관은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기다렸다. 그 마음을 담아 얼마 전 웨딩 촬영에서 선보인 화려한 스타일과 반대로 이번 스타일링 Q에서는 봄을 맞이한 수줍은 소녀로 변신했다. 따뜻한 봄날보다 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카메라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이 봄처럼 싱그럽다.

글_강나은 · 사진_이성원

부담도 보람도 큰 대법원에서의 하루하루

이번 달 스타일링 Q에 참여 예정이던 실무관은 자신의 동기에게 이 기회를 양보했다. ‘결혼 전 예쁜 사진을 더 많이 남겨두라’는 의미에서 주는 결혼 선물이었다. 바쁘게 일하며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던 양성주 실무관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 스타일링 Q에 출연하게 되었다. 2016년 2월 정식으로 형사과에 발령받았지만, 그녀는 이미 2015년 7월부터 대체 업무로 형사과에서 근무해왔다. 벌써 3년째 법원 내에서 가장 힘들다는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모두 겪었다.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님을 모시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육체노동이 많기도 해요. 게다가 악성 민원이 많은 편이라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죠.”

형사과에서 두 명씩 돌아가면서 민원 전화를 처리하지만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 계속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도 전화를 다 받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이렇게 오래 전화를 받다 보니 형사과에서 근무하면 전화기가 닿는 부분에 탈모 증상이 보이는 일도 다반사다. 덧붙여 무거운 증거기록을 옮기느라 생긴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잠도 쉽게 이룰 수 없다.

게다가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질병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직접 출근해 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첫 발령 때부터 가장 힘든 곳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어딜 가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기도 한다. 근무처가 대법원이기에 책임감도 그만큼 크다. 최종심인 만큼 ‘나의 작은 실수, 혹은 작은 도움으로 한 사람의 인생



Style
Change





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무슨 일이든 소홀히 처리할 수가 없다.

“3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뒤에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진행한 그분들은 긴 시간 얼마나 마음을 즐기면서 보내셨겠어요. 사기로 재판을 받으신 70대 할머니는 대포 통장의 피해자셨어요. 할머니가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 할아버지가 전화를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찾아가면 만날 수 있냐’고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다양한 민원인을 대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면 ‘오죽 억울하면 이렇게 찾아오실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자기 업무를 하느라 다른 동료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든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면 모두 힘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법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민원인에게도, 동료에게도 이해의 폭을 넓혀가며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만은 봄을 기다리는 소녀가 되어

그녀의 평소 스타일은 캐주얼 차림이다. 무거운 기록물을 옮겨야 하니 치마는커녕 정장 바지도 입고 다니기가 힘들다. 그녀도 다른 행정처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정장 차림이 부럽기만 하다. 동기들도 ‘누나는 나이도 있는데 대학생처럼 옷을 입고 다니냐’며 한 소리씩 거든다.

그녀는 오히려 대학생 때 정장 차림을 자주 했다. 교직이 수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보니 성숙해 보이는 스타일을 주로 한 것. 이렇게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필요한 스타일에 맞춰 입어야 했다.

“그래서 웨딩 촬영 때는 앞으로 해볼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스타일로 꾸며봤어요. 공무원인 만큼 결혼할 때가 아니면 다시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 스타일링 Q는 웨딩 촬영과는 반대로 여리여리한 소녀 스타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랑살랑하는 치마에 파스텔 톤 옷을 입은 그녀는 그동안 지나간 긴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잘 어울렸다.

“뷔스티에 스타일은 처음 입어봤어요. 편하면서도 어려 보여서 좋아요. 블라우스 대신 티셔츠와 입어도 또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결혼 준비를 한다며 늘 자신을 배려해 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변에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며 소소하게 챙겨주고, 기록을 옮기는 모습을 보면 ‘무거운 건 들지 말라’며 몸 상하지 말라고 걱정해주세요. 며칠 전에도 기록물이 떨어지면서 살짝 굼힌 다리를 보고 ‘빨리 보건실로 가보라’고 하셨을 정도예요. 그동안 제가 첫 발령이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과장님과 사무관님, 옆에 계시던 선배님들께서 기운을 북돋아주신 덕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겨우내 움츠린 만큼 더 예쁜 모습으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 그와 함께 예쁜 마음도 차려입은 그녀의 앞에 꽃길이 펼쳐져 있었다. ☺

〇〇

겨우내 움츠린 만큼 더 예쁜 모습으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
그와 함께 예쁜 마음도 차려입은 그녀의 앞에
꽃길이 펼쳐져 있었다. 〇〇



양성주님을 위한 스타일링 TIP

Fashion



첫 번째,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기장의 여성스러운 핑크색 원피스입니다. 러플 소매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꽃 자수 레이스로 페미닌한 느낌을 듬뿍 주었는데요, 내추럴한 마무리를 위해 무난한 누드 톤 구두를 매치하고 헤어도 느슨하게 묶었습니다.

두 번째, 2 in 1 스타일의 뷔스티에 원피스입니다. 차분한 그레이 컬러와 얇은 두께의 스트라이프로 캐주얼한 느낌과 함께 순수해 보이는데요, 독특한 디자인의 커팅으로 스타일리시한 느낌마저 살아납니다. 여기에 연그레이 컬러의 미니 가방을 매치해 여성스러움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세 번째, 작년부터 꾸준히 유행하는 러플 소매 스타일의 블라우스에 슬림하게 떨어지는 골지 소재의 짙은 청록색 뷔스티에 원피스를 더했습니다. 특별한 날에 센스 있는 옷차림으로 제격인데요, 초커로 사랑스러움을 더하고, 오버 니삭스처럼 보이는 스타킹을 신어 발랄한 느낌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Hair & Make up



열이 많은 타입이셔서 피부 메이크업은 모공을 가리면서도 매트하지 않게 얇게 표현했습니다. 쿨 톤의 펄이 든 색도로 우아하면서도 소녀다운 느낌을 주었고, 아이 메이크업은 그레데이션으로 눈이 더욱 커 보이게 했습니다. 헤어는 컬이 굵은 웨이브로 방향을 바꿔가며 풍성하게 세팅하고 앞머리에 볼륨을 주어 여성스럽게 연출했습니다.

tip

워낙 여성스러운 이미지여서 페미닌한 스타일은 다 잘 어울리시네요. 여성스럽기만 한 옷이 매력 없다면, 패턴이 독특하거나 포인트가 살아 있어 페미닌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의상도 잘 소화하시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장빛나 스타일리스트 -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드라마

펜싱 국가대표 박 상 영 선수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하지만 이를 실천에 적용해 증명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박상영 선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펜싱 남자 에페 결승전 현장에서 이 말이 지닌 강력한 힘을 전 세계인에게 알렸다. 한때 유행어처럼 떠오른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그 상황에서 급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펜싱을 시작한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훈련일지에 기록해온 선수로서의 마음가짐이었다. 긍정적인 자세로 꾸준히 노력해온 그에게 금메달 획득은 어쩌면 ‘반전’이 아닌 ‘예정된 결과’일지 모른다.

Q.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을 따면서 국민적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은 분의 응원과 관심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방송과 강연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다가오는 7월에 열릴 세계선수권대회 준비를 한창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금메달을 따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나아가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려면 계속해서 훈련을 열심히 해야겠죠.



박상영 선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최고의 명장면'을 만든 주인공이다.
당시 세계 랭킹 21위이던 그는 세계 3위인
헝가리의 제자 임레 선수와 맞대결해
믿기 어려운 대역전에 성공했다.
반격을 시작하기 전 마음을 다잡는 상황에서
윙조린 '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그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다.

글_정라희 · 사진_제공_큐유이



Q. 올림픽 당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던 극적인 승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순간 다시금 정신력으로 무장한 박상영 선수만의 마인드 컨트롤 비결이 궁금하네요.

올림픽 전에도 제자 임재 선수와 두 번 맞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두 번 모두 제가 이겼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 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그렇지 않았죠. 2라운드가 끝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포기하지 말자. 여기서 넘어지지 말자. 경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 하면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 생각이 말로 나온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역전에 성공했죠. 정말 짜릿했습니다.



Q. ‘할 수 있다’는 이제 박상영 선수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올림픽이 끝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또 말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건네는 인사도 ‘안녕’이 아니라 ‘할 수 있다’였을 정도니까요. 물론 덕분에 많은 분이 저를 기억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Q. 2016년에는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펜싱 남자 에페 세계 랭킹 1위로 도약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선수에게 세계 랭킹 1위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1위가 된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랭킹 1위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영원한 1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림픽 직후 8월에 열린 전국체전에서는 예선 탈락을 했죠. 그러다 11월에 열린 펜싱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했구요. 그렇게 저는 계속 패배와 승리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영원한 1등도 쫓을 수도 없다는 게 펜싱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Q. 최고의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나요?

아무래도 부상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5년 국제 그랑프리 대회 때 예전에 췌던 선수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저도 모르게 무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대로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앞으로 선수 생활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 올림픽에서 뛰는 상상을 해봤어요. ‘누구누구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 ‘앞으로 올림픽까지 1년이 남았고 이제 겨우 스무 살인데 못 할 게 뭐 있겠어?’ 하는 오기가 생겨 재활을 시작했

〇〇

영원한 1등도 꼴등도 없다는 게
펜싱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〇〇



습니다. 다행히 재활 경과가 좋아 다시 국가대표에 합류했
어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올림픽 금메달이었어요.

Q. 처음 펜싱 선수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도 성적도 애매한 상황에서 선생님께
서 펜싱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시더라고요. 첫
날 신입생 30명이 테스트를 했는데 며칠 후 저와 제 친구
두 명만 남았어요. 그때 훈련을 그만두지 않은 건 '애는 진
짜 열심히 한다. 훈련이 힘들 텐데 표정이 밝아서 좋다'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
후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Q. 혼자 쓴 훈련일지가 10여 권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훈련일지를 쓰기 시작한 계기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했나요? 또, 지금도
쓰고 있는지요.**

지금도 훈련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기록

할 생각이구요. 훈련일지에는 그날 제가 실수한 점이나 잘
한 부분 그리고 보완할 사항 등을 씁니다. 저 자신에게 하
는 다짐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Q. 많은 이에게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전해주어 감사합니다. '법'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중요하게 되새겨야 할 지표인데요.
마지막으로 박상영 선수가 생각하는 '법'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법이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는 사회가 정한 규범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 같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
은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제적, 사
회적 위치를 떠나 모든 사람이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등하게 기회를 얻도록 법이 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



혹시 당신도 번아웃?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번아웃 증후군' 늘어



“오늘도 야근을?”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 근무로 삶의 에너지를 탕진한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병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주부, 학생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그 심각성은 점점 커지는 듯하다. 글_편집부

한국 직장인의 85%가 겪는다는 '번아웃 증후군'

최근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자주 느껴지는가? 일이 주어지면 무기력하고 싫증이 나는가? 스트레스로 폭식, 음주, 흡연이 늘고 있는가?

요즘 당신에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보자. 계속되는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일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근무시간은 총 2,090시간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30분에 달해, 직장인의 약 85%가 직무 스트레스를 겪으며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최근 국회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논의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손에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일중독에 빠져 번아웃(Burnout) 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성격적으로 조급하고 강박관념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쌓아두거나 완벽주의자, 책임감이 강해 자신이 맡은 일은 만족할 때까지 해서 끝내려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부, 자영업자, 학생들도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심각한 경우 충동적인 자살이나 돌연사로 이어지기도 해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의 관심이 각별히 필요하다.

여행과 여가생활, 휴식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번아웃 증후군 극복법으로 전문가들은 여행과 여가생활, 휴식 등을 권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어느 광고 문구처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니스, 탁구 등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간혹 뇌에 휴식을 선물하는 ‘멍 때리기’도 추천한다. 최근에는 번아웃 증후군이 사회적 질병으로 번지면서 ‘멍 때리기 대회’도 열리는 것을 보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혼

자 고민하지 말고 지인이나 배우자 혹은 회사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라고 권한다. 또 되도록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일을 해결하고, 퇴근 후에 집으로 일을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한다.

한편 최근 MJ플러스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인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번아웃 증후군 극복법’도 눈길을 끈다.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직장인 3명 중 1명은 ‘잠자기(34%)’를 꼽았다. 그다음 이 술·담배와 같은 기호품(21%), 주변 친구나 지인과의 답소(18%), 여행 및 문화생활(13%), 운동(7%), 쇼핑(5%), 연애(3%) 등이다.

직장인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번아웃 증후군. 이 반감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거나 찾아온다면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지혜다. ☐



TIP

번아웃 증후군 자가 진단법

- ☐ 아침에 눈 뜰 때 자신이 근사하다는 마음이 드는가?
- ☐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고 깜박깜박하는가?
- ☐ 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던 일들이 요즘엔 짜증이 나고 화를 참지 못하겠는가?
- ☐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가?
- ☐ 이전엔 즐겁던 일들이 요즘엔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삶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가?

* 5개 중 3개 이상이면 번아웃 의심
출처 : MBC '다큐스페셜 - 오늘도 피로한 당신, 번아웃'

번아웃 증후군 극복법

1.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운동, 여행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
2.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마음을 털어놓고 소통한다.
3. 철분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즐겨 먹는다.



강연의 시대, 그 빛과 그림자

지식 셀러브리티의 탄생,
어떻게 봐야 할까

강연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강연 소재의 방송 프로그램은 갈수록 많아지고 이를 통해 스타가 된 강연자들의 책이 출판가 베스트셀러로 기록되고 있다. 이른바 지식 셀러브리티의 탄생. 무엇이 이런 시대를 열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글 정덕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언변이 뛰어난 지식 셀러브리티의 탄생

물론 설민석은 방송에 나오기 전에도 유명한 한국사 일타강사였다. 하지만 그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자 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가 MBC <무한도전>에서 역사 강의를 하는 모습은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사실 역사 지식에 있어서 그가 특화된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연극영화과를 전공한 그답게 그는 똑같은 내용도 특유의 언변과 연기를 섞어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무한도전>에서 주목을 받은 그는 tvN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어쩌다 만 고정'이 되어버렸다.

사실 <어쩌다 어른>은 중년이면서도 여전히 청춘을 구가하는 세대들을 겨냥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슬그머니 강연 프로그램으로 색채를 바꿨다. 강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었고, 그 갈증을 채워줄 설민석이나 최진기,



조승연, 양재진, 허태균 교수 같은 지식 셀러브리티들도 조금씩 대중들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강연의 시대는 그렇게 조금씩 대중들에게 다가와 어느새 문화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다.

쏟아져 나온 강연 프로그램과 말의 힘

물론 이전에도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를 쓴 심리학자 김정운 교수나 아줌마 대상으로 주가를 올렸던 김미경 강사 같은 이들이 출연해서 벌이는 강연은 화제가 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강연 프로그램들은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들이며 훨씬 더 강연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예능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JTBC의 <말하는 대로> 같은 프로그램은 길거리에서 시도하는 이른바 ‘강연 버스킹’을 콘셉트로 삼았다. 사실 그만큼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최근의 탄핵 정국을 만나면서 프로그램은 날개를 달았다. 시국에 대한 거침없는 사이다 강연들이 쏟아졌고 스타 강사들과 연예인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대거 강연에 참여했다.

KBS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 이전부터 <강연 100℃>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해오고 있었다. 전형적인 강연형식을 그대로 프로그램화했지만 <강연 100℃>는 강연자를 교수에서부터 일반 주부까지 다양하게 끌어들이으로써 다채로운 강연의 맛을 선사하고 있다.

출판가와 방송가 장악한 지식 셀러브리티들

이들 지식 셀러브리티들은 출판가와 방송가 그리고 강연 시장이 일종의 선순환을 그리면서 점점 그 존재감이 강해졌다. 즉 강연시장에서 이름을 높이거나 출판시장에서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들이 최근 생겨난 여러 강연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면서 그 저변을 넓히고 그래서 다시 강연시장과 출판시장에서 주가가 더욱 올라가는 식이다.

그래서 요즘 불황이라는 출판가를 들여다보면 방송에서 활약하는 지식 셀러브리티들이 베스트셀러 명단을 거의 채우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고구마 현실들은
강연 같은 명쾌한 사이다 발언의 힘을
한층 높여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다의 시원함이
궁극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JTBC <썰전>과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인기를 얻고 있는 유시민 작가는 최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나의 한국현대사’, ‘어떻게 살 것인가’, ‘표현의 기술’ 등등 쏟아내는 단행본마다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이제 방송과 강연은 최근 들어 점점 위축된 출판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자리하게 됐다.

강연의 시대, 과연 빛만 있을까

이른바 ‘강연의 시대’가 열린 원동력은 ‘불안감’이다. 갈수록 복잡해져가고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대중들은 무언가 기댈 것을 찾고 있다. 물론 이런 강연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그걸 듣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연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최근 인문학 강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불안감을 고전을 통해 넘어서 보려는 간간함이다. 그래서 강연은 이러한 무질서한 현실에 어떤 맥락을 주고, 또 일시적이거나 위로와 위안을 준다는 의미에서 효용가치가 있지만, 그게 실제 현실을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최근 강연 프로그램 같은 간편한 패스트푸드식의 지식 소비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식 자체의 오용이 생길 위험성을 지적하곤 한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고구마 현실들은 강연 같은 명쾌한 사이다 발언의 힘을 한층 높여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다의 시원함이 궁극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더욱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강연의 시대가 그 빛과 함께 길게 드리우고 있는 그림자다.

COURT NEWS

2017년도 상반기 친절 및 부패방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이날 장성임 강사는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따뜻한 '공감서비스'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알리고 주변의 CS 실천사례 등을 전파하였으며, 강동원 기획법관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기 쉬운 부패유형과 그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 및 사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김진일 서무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및 업무처리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풍을 조성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2017. 3. 20.(월) 오전 (10:00~11:40)과 오후(14:00~15:40)에 걸쳐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상반기 친절 및 부패방지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과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을 비롯한 고등·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외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은행 CS전문가인 장성임 강사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공감서비스'라는 제목의 친절교육을 시작으로 강동원 기획법관의 부패방지 교육, 김진일 서무담당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법원장 학교특강「법, 재판 그리고 꿈」강연



장의 명쾌한 답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장, 교장선생님과 함께 법복을 입고 기념촬영도 하면서 미래의 법조인이 되는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이번 방문 특강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민에게 다가가 편하고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안철상 법원장은 2017. 3. 14.(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장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4~6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법, 재판 그리고 꿈」이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장동초등학교는 1966년에 개교한 학교로 '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며, '우리'로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학생 한 명 한 명이 반짝이는 별처럼 자랄 수 있게 하는 교육을 목표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계곡산의 품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으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안철상 법원장은 여러 가지 동영상과 다양한 사례 그리고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법원의 역할, 법상식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학생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을 법원

2017 APRIL

언론, 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법위원회



원회 활동을 통하여 부산법원과 시민의 실질적인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후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위원들은 2016년 운영보고 및 2017년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구체적으로는 시민사법위원회와 함께하는 사법참여 활동의 일환으로 그림자배심원 참여 및 법정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정겨운 세상 만들기'와 공동 봉사활동 실시, 부산고등법원 개원 30주년 기념 포럼 또는 학술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원과 시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주신 시민사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사법위원회가 법원과 시민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익과 법원의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며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色の향연」, 「My Flower」展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2017. 3. 13.(월) 11:00 4층 중회의실에서 시민사법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받으며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판 업무 역량 강화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5일 전국법원 최초로 시민사법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시민사법포럼, 법정모니터링, 시민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부산법원의 법정언행 개선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과위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사법위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중)은 청사 내 4, 3층에 위치한 미술관「서부공간」에 2017. 3. 6.(월)~4. 7.(금)까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한영숙 작가의 「色の향연展」, 송명순 작가의 「My Flower展」을 개최합니다.

유화기법을 주된 소재로 하는 한영숙 작가의 〈자유로운 질서 series〉, 수채화 형식을 통한 「꽃」 그림을 테마로 하는 송명순 작가의 〈향수-고향을 그리며〉, 〈passion flower〉 등을 전시합니다. 우리 법원 미술관은 앞으로도 일반시민, 작가,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하여 법원을 찾는 시민들과 법원 가족들이 서로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사람들 원고모집

법원 가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 Q'와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참여해 주신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내외
- 원고 마감 : 수시
- 보내실 곳 : E-mail_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 02-3480-1456 공보관실
-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 트위터 주소 : <http://www.twitter.com/scourtkorea>
-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지난호 퀴즈 당.첨.자.

성화숙 행정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서영 실무관 화성등기소
강경호 행정관 의정부지법
조현정 실무관 서울서부지법
홍성우 실무관 법원도서관



지난호 퀴즈 정.답.



다른 그림찾기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2017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다른 부분을
다섯 군데
찾아주세요.

다른그림찾기 정답은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한 사진을 스캔한 후 e-mail에 첨부하여 해당 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 e-mail : 법원사람들@scourt.go.kr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사무국 민사과 허진숙 실무관(現 서귀포 등기소)

친절한 전화상담을 해준 직원을 칭찬합니다

최근 딸아이 일로 법원에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한 직원으로부터 오랫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직원에 대해 칭찬하고 싶어 홈페이지를 살피던 중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친절한 모범 직원을 추천받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10시경 민사 5단독에 전화를 걸어 소송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저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허진숙 실무관으로 목소리가 아주 친절하였습니다. 실무관의 친절한 목소리 덕분에 복잡한 얘기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하는 내내 민원인의 입장과 마음을 잘 이해해주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준비하는 소송이 학교 폭력 관련 사건으로 학부모가 원고이고 피고가 가해 학생 부모 등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현재 재판이 가해 학생 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진숙 씨는 피고인의 신분과 관계없이 판사님이 여러 정황이나 증거를 보고 판단하실 거라며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주었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법원에 전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진숙 실무관의 친절한 목소리와 통화 덕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편히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딸아이의 결석처리 문제로 교육감과 행정심판 중에 있는데 교육공무원들이 진술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가해학생과 45분 동안 한 공간에서 방치한 사실 등 억울한 사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하자 실무관은 행정소송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안내해 주고 법원 소송 약식도 말해주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건 전화에 이렇듯 친절한 상담을 받고 나니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였고 큰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에 전화하는 사람 중에는 저처럼 억울한 심정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직원이 남의 일처럼 대하면 더욱 서러운 마음이 들지요. 반대로 직원의 입장에서선 황설풍수설하는 민원인의 말을 하나하나 들어주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고 그뿐 아니라 다양한 소송절차 등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사 5단독 허진숙 직원을 다시 한번 칭찬하며 관련 부서도 크게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원, 요양소 등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면 전화하세요

구출구출 인신보호제도

 16619797
인신보호제도안내전화

구출

구출



 16619797
정신보호제도안내전화